

특집

□ 石油製品시장 동향과 전망 □

세계石油製品 시장동향

I. 개 요

노은 휘발유가격의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올려
고를 석유시장의 전망은 정제업자들에게 별로
밝지 못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난방유와 잔사연료
유 부문의 손실은 정유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망쳐
버리려 위협하고, 심지어는 세계 석유가격구조에
대해서조차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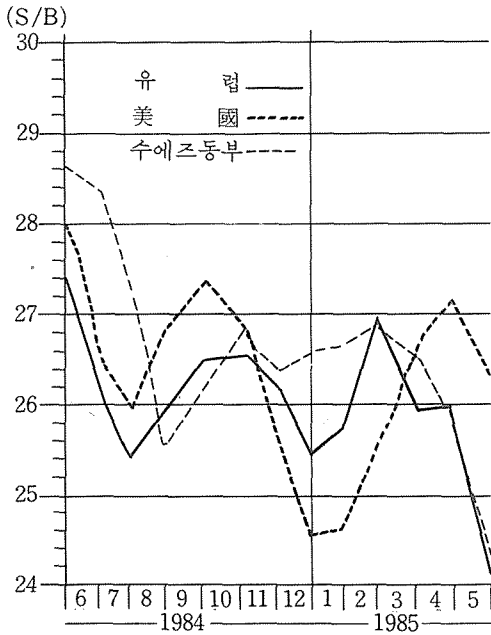
이렇듯 경질제품과 중질제품의 가격체도는 모든
주요현물시장에서 점차 간격을 넓히면서 별개의 방
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휘발유가격은 배럴당 32
~34달러선에서 상승추세이며, 난방연료유 가격은
배럴당 28-29달러선에서 하강 추세이다. 잔사연료
유 가격은 5월 평균 21-23달러 수준이었으나, 최
근들어서는 20달러를 밑돌고 있다.

휘발유와 중질제품간의 이와 같은 양분화 현상은
모든 주요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제품의 왕래에서 오는 통상적 잇점까지도 거의 소
멸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정제업자들이 경질제품
은 부족하고 중질연료유는 남아돈다는 똑같은 현상
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가격 추세는 더
욱 악화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휘발유나 나프타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반면 난방유나 잔사연료유의 과잉
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변적인 출로가 없다는 것
을 뜻하기도 한다.

석유제품의 전반적 시세는 모든 주요 정제지역에
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OPEC의 대
표유종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네트백 가격(원유가
격을 석유제품판매가격에 연동시킨 가격)이 작년
겨울과 여름의 최저수준과 맞먹는 배럴당 25달러
를 밑도는 수준이다. 정제의 경제성은 美國이 가장
강해서 아라비안 라이트의 네트백가격이 26.40달
러로 여전히 최고이며, 그 다음으로 카리브해가 25
달러, 로테르담과 수에즈 동부가 모두 24달러, 지
중해가 23.60달러로 가장 낮다.

정제 네트백은 아라비안 헤비와 같은 경우, 地中海의 22달러 이하에서 美國의 25달러에 이르기까
지 더욱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경질
· 중질원유간에도 완전한 위치전도가 발생했다. 경
질유 이스무즈가 중질유 마야보다 훨씬 우월한 네
트백을 보여 공시가격에 근접할 정도의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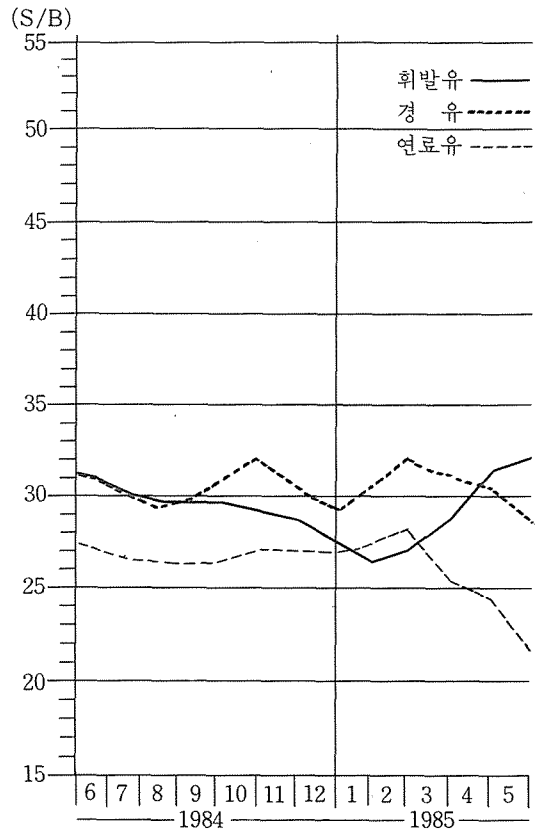
아라비안 라이트 넷백 價格추이



휘발유 수율이 높은 아프리카산과 北海産 원유는 中東産원유보다는 덜 고전하는 편이다. 서반구에서 나이지리아산 보니 라이트 원유의 넷백가격이 여전히 배럴당 28달러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라이트와 같은 경질의 스위트한 원유도 파잉공급 상태인 지중해나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26달러를 크게 밑도는 넷백 가치를 보여 가장 험난한 길을 맞고 있다. 상대적으로 美國시장에서의 높은 경질원유가치는 단기공급의 현물원유에도 정제처리상의 이윤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휘발유와 연료유 가격간의 이러한 高低콤비네이션은 고도화 설비를 갖춘 정유공장들로서는 꿈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다. 美國의 발레로(Valero)같은 고도기술의 정유공장들은 이제까지의 고전국면에서 벗어나 경제성을 높여갈 것이며, 사우디의 안부와 같은 고도화 신규수출 지향 정유공장들에게도 제품의 시장판매를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고도화 정유공장의 연료유 feed stock 코스트는 현재 바닥세까지 접근하고 있다. 美國 시장가격은 현재 천연가스와 같거나 그 이하이며,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동력시설등 주요 고객들로 하여금 연료유로 전환토록 자극할지도 모른다.

유럽 現物價格



II. 유 럽

유럽 시장에서는 휘발유와 연료유 현물가격간의 격차가 너무도 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높은 휘발유가격은 유럽정제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크래킹 공정과 전환공정을 100% 가동시키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이제 휘발유제조는 정제업자들에게 승부를 거는 게임처럼 되어 버렸으며, 여기에서의 성공여부가 시장강세의 지속을 전적으로 좌우할 것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침체국면의 연료유시장 정세와 연관되어 지난 3월 英國 석탄광부들의 파업이 끝난 이래 두 제품간의 가격차를 톤당 150달러로 배가시켜 놓았다. 일부 시장거래자들은 두제품간의 양분화 추세가 너무나 심화되어 조만간 자체 케도 수정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휘발유의 수요는 英國, 스칸디나비아제국, 西獨 및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에서 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프랑스와 지중해 시장(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나프타 가격도 덩달아 강세를 보여 휘발유로 전환가능한 등급의 할증료가 톤당 15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석유화학 원료용 나프타는 LPG와 가스오일이 대체품으로 인기를 얻게될 경우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III. 수에즈등부

이 지역의 주요 정제업자들은 제품의 현물시세가 전면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원유처리량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자들은 이러한 정제감축이 공급과잉을 억제시킬만큼 확고한 수정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싱가포르의 정제처리량은 현재 하루 60만배럴로 10만배럴 정도가 감소했으며, 이 중 셸이 20만배럴, 엑슨이 12만배럴, 모빌이 15만배럴, 그리고 싱가포르 정유공장이 10만배럴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 제 3 지역의 정제처리시설들이 제품의 현실화가 압박을 받음에 따라 정제를 중단해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신규 정유공장들이 초기적 문제들을 극복함에 따라 지난 4 월 싱가포르에서의 위탁정제를 중단함으로써 말레이시아(Petronas)와

中共(Sinochem)에 각각 하루 8만배럴씩의 위탁정제 세어를 할애했다.

이 지역 제품시장들은 사우디의 수출용 고도화 정유공장인 주베일 정유공장이 7월초에 수출을 전면 시작함에 따라 점차 불안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사우디의 또 다른 수출지향 정유공장인 안부 정유공장은 그동안 생산한 중간유분을 정치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 수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다른 제품출로가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極東지역에는 지중해등 원거리에서 남아도는 고유황원료유가 범람해 들어오고 있어 다른 시장에서처럼 가격하락이 유발되고 있다. 거래자들은 따라서 아직도 이들 원료유가 톤당 몇 달러는 더 내리갈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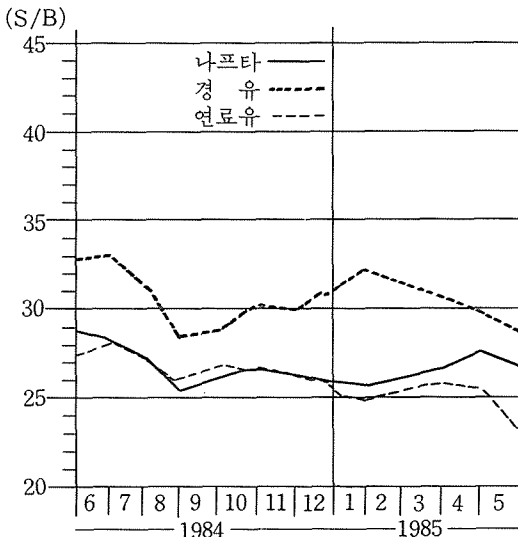
日本은 지난 달 黑海로부터 몇차례의 선적분을 인수했으며 이러한 장거리 수출에서 생기는 경제성을 회항수송의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美国 서해안에서 선적된 저유황 원료유가 일부 韓國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日本의 저유황 원료유 수요는 우수한 수력발전 시설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일부 거래자들은 LSWR(Low Sulfur Wax Residue)의 가격이 극동지역의 수요감소와 공급량 증대로 배럴당 1 달러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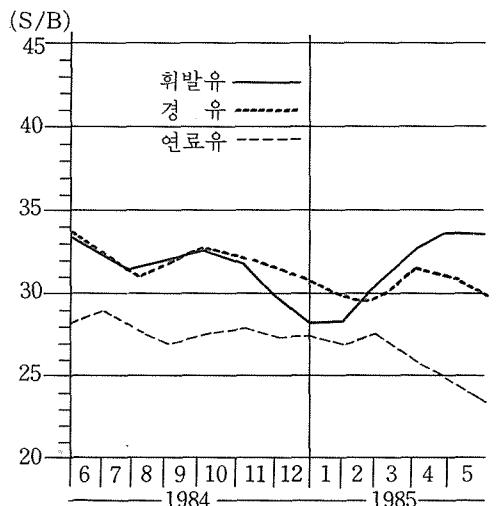
IV. 美 洲

서반구의 현물 제품시장 가격도 전반적인 내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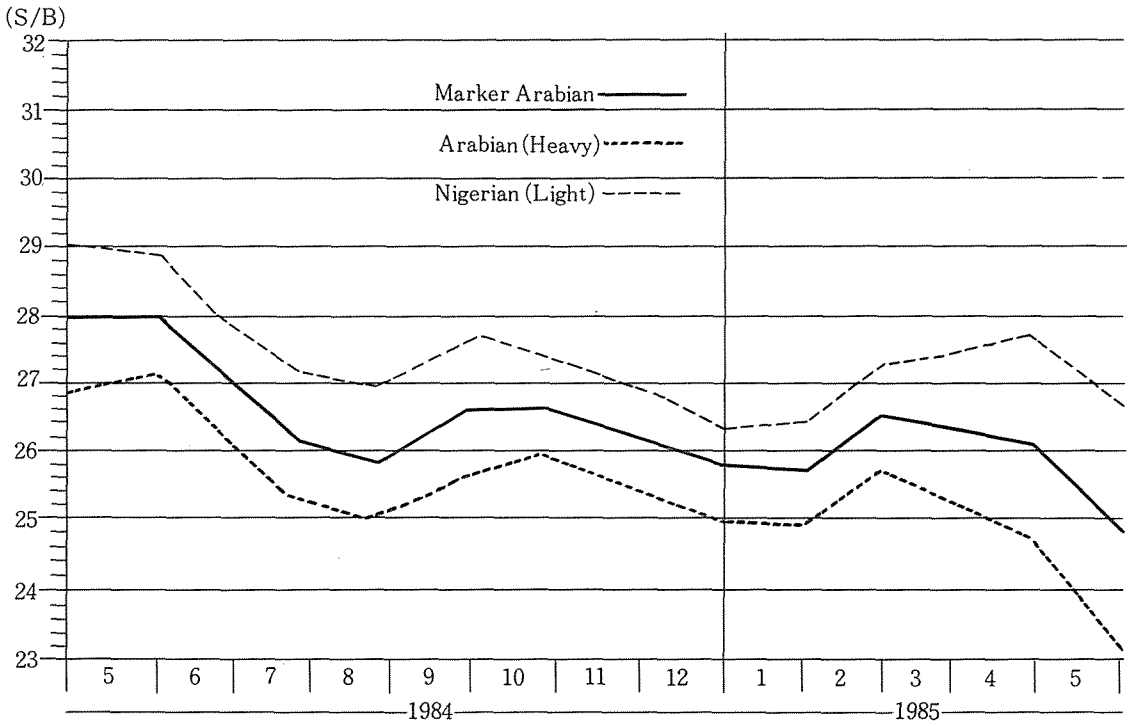
수에즈 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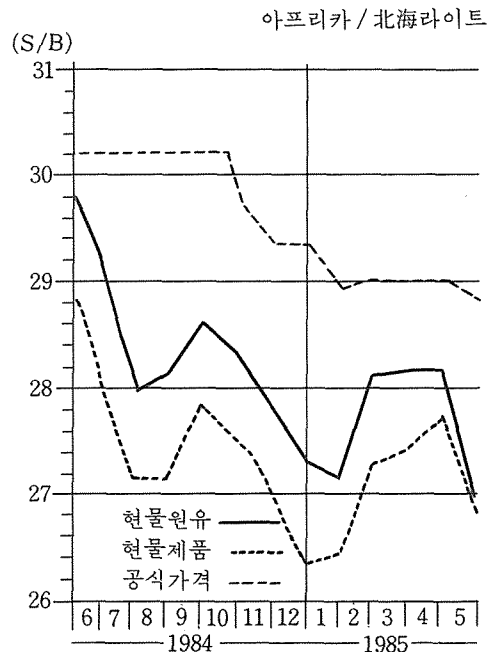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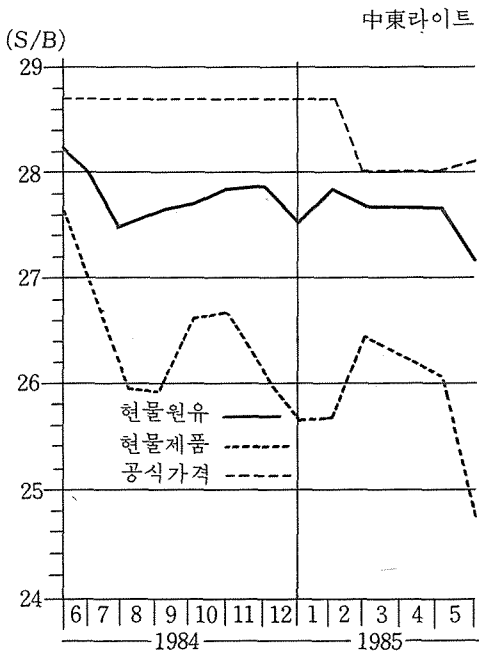
美國 현물가격



Light & Heavy Crudes Versus 'Marker'



現物原油 및 제품시장 지수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美国은 여전히 세계 제 1의 제품강세시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제품의 재고가 적정수준이어서 정제업자들은 조심스레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올 여름에 가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균형조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美国내 정유가동률은 지난 겨울의 73-74% 수준에서 4월 76%, 그리고 최근 몇주 사이에는 79%까지 증가했다. 대부분의 대 석유회사들은 수입 휘발유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현물시장에서 충당해가면서 가동률을 수요에 긴박하게 맞추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無鉛 휘발유가격의 폭등

추세는 멈추어졌으며, 제품시장은 현안의 납함유량 리미트의 단계적 감축에 대비, 자체 조정중이다. 無鉛 휘발유가 누리던 할증료는 높은 제품가격에 따라 베네수엘라, 브라질, 루마니아, 사우디 아라비아 및 地中海 연안지역으로부터 막대한 물량이 유입된 이후 갤론당 2센트로 하락했다. 한편 캐나다등 인접지역에서 들어오던 有鉛 휘발유는 이제 유입이 중지됐고, 보다 활발해진 유럽시장으로 부터도 대서양 횡단 수입이 침체되고 있다. 두 휘발유 제품간의 3센트의 정제비 격차와 최종소비자가격이 15-20센트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2센트라는 할증료는 너무나 적다. *

(PIW)

□ 消費国動向 □

日本, 페灣석유제품에 門戶개방

- IEA각료회의 閉幕성명 -

日本은 美国과 EC(유럽공동체)의 지속적인 압력에 굴복, 페르시灣 석유제품에 대해 수입번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관계소식통들이 지난 9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 합의가 파리에 본부를 두고 非공산권의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國際에너지機構(IEA) 각료회의가 폐막성명을 통해 『석유제품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IEA 회원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C는 페르시灣 국가들의 새로운 수출용정유공장들의 석유제품생산능력이 90년대 말에는 5천만톤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들 석유제품이 가장 가까운 유럽시장에 밀려들 것을 우려하고 日本에 대해 수입시장을 개방토록 다각적인 외교압력을 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英國의 뷰캐넌·스미드 에너지長官은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량이 상대적으로는 작은 규모일 것이지만 부담을 나누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모사르 EC에너지局長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EC는 주요 세 IEA의 소비국불력들이 공평히 수입부담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나 존·헤링턴 美国

에너지長官은 시장개방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면서 물량배정과 같은 견해에 반대했다.

여하튼 日本의 시장개방에 대한 동의는 나카소네 日本수상의 유럽방문에 영향받은 것이라고 IEA 각료회의의 일부 참석자들은 말했다. 나카소네首相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가진 후 이탈리아를 거쳐 브뤼셀로 가서 자케스·델로스 EC위원회 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석유소비국과 생산국들간의 대화에 관한 문제는 同공동성명에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대표들은 말하고 양 당사자들간에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접촉을 통해 에너지추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헤링턴長官은 일부 IEA 회원국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산국-소비국간에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時期尚早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접촉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가격과 공급물량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수입을 규제하게 되리라는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